

# 한국전쟁과 냉전의 사회과학자들\*

- 한국전쟁의 경험은 어떻게  
미국 냉전 사회과학의 일부가 되었는가? -

정준영\*\*

## 〈차 례〉

1. 들어가며
2. '냉전과학'의 추종자들과 시험대로서 한국전쟁
3. 심리전의 인식론과 전쟁의 현장성
4. 사회과학적 조사의 이면들
5. 나가며: 냉전사회과학의 문제의식과 한국전쟁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냉전 사회과학 확립의 전환적인 계기로서 미국 사회과학의 한국전쟁 개입 과정과 그 내용을 분석한 연구 성과들에 기반 하여 주요한 쟁점과 연구 과제를 조망한 것이다. 미 공군대학의 인적자원연구소(HRRI)가 한국전쟁에서 실시한 조사연구 프로젝트를 분석의 준거로 삼았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지식과 과학의 전쟁동원 역시 종료되었지만, 한국전쟁의 발발로 사회과학은 다시 국가에 복무할 기회를 부여받았다.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군의 요청에 따라 한국이라는 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그 조사 결과는 사회과학의 방법으로 가공되어 미국 사회과학 저널에 학술 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하였다. 전쟁동원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프로젝트 발주-현지조사-보고서 작성-연구논문 제출'이라는 학술연구의 전형적 프로세스가 작동했던 것이다. 이 논문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은 이 학술의 과정에서 추상화와 계량화를 통해 탈맥락화되고 은폐된 현실의 지점들이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연구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교수

[주제어] 전쟁등원 · 냉전 사회과학 · 심리전 · 한국전쟁 · 군학복합체 · 인적자원연구소(HRRI)

## 1. 들어가며

이 연구는 한국전쟁의 경험의 사회과학계의 냉전적 전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또 이러한 변화가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과학계의 형성과정 및 제도화에 어떻게 환류(還流)해 들어오는지를 성찰적으로 검토하려는 시도의 일부이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심리전(心理戰)의 맥락에서 한국전쟁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에 주목한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은 군부의 지원 하에서 심리전 작전에 대거 투입되었다. 그 중에는 직접 한반도로 건너와 현장조사를 수행했던 사회과학자들도 있었다. 전쟁은 연구자들의 경력에서도 중요한 기회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대학과 국가를 매개하는 ‘파이프라인’으로써 각 학문분야에서 주요한 위치들을 차지했다.<sup>1)</sup> 사회과학이라는 지식체계가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과학자로서 한국전쟁에서 무엇을 경험했고 또 어떻게 이를 다루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충분히 가치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현장(field)’은 어떻게 사회과학 분야의 사례연구(case studies)로 ‘변환’될 수 있었을까. 심리전의 수행, 다시 말해 학술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용적인’ 의도들과 동족(同族)을 살육하는 처참한 전쟁의 현장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빈안된 사회과학의 연구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었을까. 이렇게 세밀하게 따져 볼 문제들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한국전쟁에 ‘개입’했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에 주목하는

1) 이 시기 미국 사회과학계의 변화를 세대론적인 차원에서 접근한 분석의 사례로는 Henrika Kuklick, “A ‘Scientific Revolution’: Sociologic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1930–1945,” *Sociological Inquiry* 43, 1973, pp.3~22; William Sewell, “Some Reflections on the Golden Age of Interdisciplinary Soci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1989, pp. 1~16 등이 참조가 된다. 후술하겠지만 한국전쟁의 심리전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회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경력의 궤적을 보인다.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한국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에 주목하여, 이런 심리전의 인식 기반이 구축되는데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이 어떻게 동원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한 정용욱의 연구는 국내 학계에서 이런 관심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되었다.<sup>2)</sup> 그는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심리전의 차원에서 미국에서 본격화되었던 군부와 학계 사이의 유착관계를 제도적, 인적 네트워크의 차원에서 분석한 크리스토퍼 심슨의 『강압의 과학』을 번역, 출간하기도 했는데,<sup>3)</sup> 이임하와 더불어 한국전쟁기 심리전과 관련해서 어떤 사회과학적 개입이 있었는지 그 개략적인 구도를 소개하는 데도 기여했다.<sup>4)</sup>

한국전쟁 당시의 ‘심리전 프로젝트’ 중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보고서들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들도 등장했다. 미 공군대학(Air University) 인적자원연구소(HRRI, Human Resources Research Institute)가 1951년 작성한 2권의 보고서, 『공산주의가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한 예비적 연구』와 『남한에서 심리전 연구의 함의와 요약』(이하, HRRI보고서 1~2)<sup>5)</sup>와, 미국무부의 정보조사국(OIR, Office of Intelligence and Research)이 작성한 보고서 『북한, 위성국가의 사례연구』(OIR보고서 no. 5600)<sup>6)</sup>는 일찍부터 냉전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sup>7)</sup> 이들 보고서는 한국전쟁 초기 사회과학의 훈련을 받은 전문 민간인들에 의해 작성되었는데, 한국전쟁 직전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던 ‘소비에트 정권’에 대한 당시 미국

2)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2004.

3) 크리스토퍼 심슨, 정용욱 역, 『강압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1960』, 선인, 2009

4)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영희, 2011

5) HRRI, “Preliminary Study of Impact of Communism Upon Korea: Psychological Warfare Report”, Air University, Maxwell Air Force Base, 1951.5; HRRI, “Implications and Summary of a Psychological Warfare Study in South Korea”, Air University, Maxwell Air Force Base, 1951.5;

6) “North Korea: A Case Study of a Soviet Satellite,”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OIR), Report No. 5600, 1951.5.20.. 이 보고서는 3급 기밀로 묶였다가 1961년 4월 기밀해제 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7) 크리스토퍼 심슨, 위의 책; Ron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사회과학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었다. 출간 이후에는 미국의 학계에서 소련 인식, 사회주의 이해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어떤 의도로 출범했으며, 어떤 사회과학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참여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전쟁의 상대인 북한, 중국, 소련에 대한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고 특정한 인식을 구축했는지가 탐구의 대상으로 등장한 것이다.<sup>8)</sup>

이렇게 구축된 학술적 지식은 냉전적 대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공간 속에서 심리전의 텍스트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응용되는지를 고찰하려는 시도도 나타났다.<sup>9)</sup>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구축된 적(敵)에 대한 인식은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문화냉전의 인식적 토대로 남았던 것이다. 학술적 지식의 냉전적 환류 현상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한국전쟁을 통해 미국 사회과학자들이 구축한 ‘북한’에 대한 지식체계가 미국의 아시아 지역학으로 제도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sup>10)</sup> 적에 대한 지식은 북한연구가 되어 원래의 장소로 되돌아오는 경위, 즉 한국에서 학술장(學術場) 속에 편입되는 양상도 검토의 대상이 되었다.<sup>11)</sup> 이렇게 ‘북한에 대한 앎’이 환류(還流)의 회로를 거쳐 제도화되는 와중에, 월남 지식인과 귀순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을 발화하고 재현하는지를 고찰하는 연구도 나타났다.<sup>12)</sup>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은 이처럼 심리전에서 문화냉전으로 이어지는 냉전적 학지(學知)의 전지구적 유통 회로가 창출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 중 하나로 간주될 만한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

8) 김일환, 정준영, 「냉전의 사회과학과 ‘실험장’으로서의 한국전쟁 : 미공군 심리전 프로젝트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 『역사비평』 115, 2017; 류기현, 「한국전쟁기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의 북한 현지 조사와 북한연구의 태동」, 『6.25전쟁과 냉전지식체계의 형성』, 제55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회의 자료집, 2020

9) 옥창준·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 : 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 『역사비평』 115, 2017

10) 브루스 커밍스·해리 하루투니안(대답), 「미국 아시아학의 비판적 검토」, 『역사비평』 54, 2001; 채오병, 「냉전과 지역학 : 미국의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그 파열, 1945~1996」, 『사회와 역사』 104, 2014

11) 김성보,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 연구의 학술장 진입」, 『사이間SAI』 22, 2017

12) 장세진, 「월남, 노스텔지어, 과학-월남 지식인들과 1960년대 북한 학지(學知)의 성립 사정」, 『사이間SAI』 17, 2014

그런데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에 관련해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는 다른 차원의 독법(讀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심리전’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활동이 전제하고 있는 ‘사회과학’의 측면에 주목하는 방법이다. 만약 그들의 활동이 그저 과학이란 이름으로 이념의 허울을 은폐하는 사악한 의도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이를 폭로하는 것만으로 냉전적 지식체계는 붕괴되어야 옳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학문적으로 체계화된 인식체계는 그것을 대체할 이론 및 정보가 등장하지 않는 한 지속되는 경향을 우리는 손쉽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지속에 대해 “일단 만들어진 이미지는 반복 재생을 통해 고정되고, 이론적인 체계화의 과정을 통해 이데올로기로 기능”<sup>13)</sup>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다.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이들에게서 확인되는 ‘아카데미한’ 측면들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과연 이 시기 미국 사회과학계가 겪었던 ‘냉전적 전회’는 이후 많은 비판자들이 지적하듯 결국 학문적 변절이나 ‘곡학아세(曲學阿世)’에 불과했으며, 한국전쟁에 참여한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 또한 그 전형에 불과한 것일까?

게다가 군사적 이해와의 밀착을 별도로 하더라도, ‘냉전’ 사회과학과 관련한 다소간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 중 하나가 주변부 한국에서 이루어진 이들의 현장조사는 중심부 미국학계에서 구축된 냉전 사회과학의 적용에 불과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다. 물론 이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지식을 독점했고, 따라서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지극히 불균등하게 배분되었으리라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런 질문은 다소 동어 반복적으로 느껴질지 모르겠다. 실제로 관련 연구들은 발언의 권리를 가지는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이 정작 현지사정에는 무지했고 현장조사의 기간도 길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sup>14)</sup> 현지인 협력자, 즉 한국인 지식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이며, 따라서 이런 ‘식민주의적 조우(colonial contact)’의 장면에서 냉전사회과학이 한국의 사회과학계에 남긴 흔적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13) 정용욱, 앞의 논문, 122쪽.

14)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283쪽.

추측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도리어 대단히 일리 있는 지적으로, 향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그 흔적을 확인하는 작업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를 별도로 하고 보면, 한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회’가 미쳤던 영향은 생각만큼 즉각적이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의문의 여지가 남는다.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의 지식인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 그 변화는 생각만큼 현격하지 않았다. 1960년대를 거쳐 유학을 통해 미국의 ‘사회과학’을 몸에 익힌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기 이전까지 한국의 사회과학계는 미국의 영향을 외피(外皮)로 썼지만 실상 그 내용은 식민지시기 수용했던 학문체계를 애매하게 유지하는 양상이 계속되었던 것이다.<sup>15)</sup> 과연 이러한 상황의 지속은 중심과 주변의 간극이 넓어져 그만큼 ‘지체(遲滯)’된 결과로 볼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면,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회와 어떤 관련을 맺는 것일까?

여기서는 “천막 속의 과학자들,”<sup>16)</sup> 다시 말해 한국전쟁기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존 연구들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제기하는 주요한 논점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한국전쟁’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의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글은 개별 연구를 비교·검토하는 과정에서 HRR의 ‘소비에트 프로젝트’에 대한 분석을 준거로 선택하고자 한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사회과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전모가 아직도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HRR 프로젝트는 많은 연구들이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서 각 접근 방식이 가진 특징적 측면을 비교하기에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sup>17)</sup>

15) 이런 양상에 대한 문제제기는 정준영, 『해방직후 대학사회의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학과제 도입의 역사사회학적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을 참조.

16) 이 의미심장한 표현은 정용욱 교수의 발표문 제목에서 차용했다. 정용욱, 『천막 속의 과학자들: 냉전의 적과 동양사회 사이에서』, 『한국정치사 콜로кви엄』(2018.11.16),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17) 이 프로젝트는 HRR가 자체 연구 인력으로 수행하는 대신에 외부 대학 및 기관에서 활동하는 사회과학자들을 초빙하여 수행되었기 군부·정부에 직접 고용된 민간인들, 국책과제를 맡은 연구기관의 전임인력들에 의해 수행된 심리전 프로젝트들에 비해서 아카데미한 측면이 훨씬 강했으며, 참여한 학자들 당시로서는 냉전사회과학을 대표하는 중진 연구자였다. 따라서 심리전과 사회과학

한편,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한국전쟁은 지구적 차원에서 보아도 냉전적 인식과 지식이 창출되는 중요한 계기이자 원천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제안하고자 한다. 한국전쟁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이 냉전 사회과학의 이해 관계가 투영되어있는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회 그 자체의 계기였던 측면도 없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제기가 냉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이 가지는 지식사회학적 의미를 ‘냉전연구’의 전환이라는 맥락에서 자리매김하는 작업도 수행하고자 한다.<sup>18)</sup>

## 2. ‘냉전과학’의 추종자들과 시험대로서 한국전쟁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전쟁 당시 활동했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은 ‘심리전’과의 관련성 속에서 주목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강압의 과학』에서 크리스토퍼 심슨(Christopher Simpson)이 밝혔던 바, “학문과 과학의 이름”으로 가치중립을 표방했던 사회과학적 작업이 실은 중립적이지도 개관적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후원을 매개로 기꺼이 정치와 전쟁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는 폭로는 독자들에게 대단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군(軍)과 학(學)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구축된 사회과학 이론과 방법론을 시험하는 무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심리학자 론 로빈(Ron Robin)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주목받기 시작했던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추종자들은 한국전쟁을 통해 그들의 이론이 실제 삶의 국면에서도 검증될 수 있기를 바랐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살벌한 전장(戰場)에서 누가 친구이고 또 적인

---

의 연루, 길항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들로 이미 많은 연구들이 분석을 시도한 바 있다.

18)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관련 연구들의 경향과 쟁점을 검토하는 리뷰 페이지의 형식을 취하며 이들 연구들이 제기하는 쟁점을 검토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리뷰의 대상에는 필자의 공저 논문(김일환·정준영, 2017)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줄고가 충분히 규명되지 못한 문제점에 대한 자기반성도 포함된다.

지를 식별하고 예측하는 지적인 무기라고 보았고, 전투의 현장에서 뿐 아니라 야전과 포로수용소에서 실질적인 조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sup>19)</sup> 한국전쟁은 그 이전까지는 예외적이었던 ‘군(軍)과 학(學)의 결합’이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계기로도 작용했던 것이다. 론 로빈은 행동과학이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던 그 흥망성쇠의 경위를 냉전적 학지의 형성과정, 다시 말해 이들이 추종했던 행동과학이 “냉전의 적 만들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추적했다. 실제로 그는 저서에서 한국전쟁 당시 제출되었던 주요한 사회과학 프로젝트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행동과학의 추종자들에게 한국전쟁이란 무엇이었으며 심리전 프로젝트를 통해 이들은 어떤 것을 기대했던 것일까?

론 로빈의 분석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한국전쟁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개략적으로 확인해두자. 한국전쟁에는 정부, 군부의 심리전 기구 뿐 아니라 대학, 연구소 등 다양한 소속의 민간인들이 사회과학적인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리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연구 인력들이 결합된 형태, 군부 및 정부와 맺는 관계, 현장 정보에의 접근정도, 군사작전에의 관여정도, 결과물의 활용(대외공개) 정도 등이 제 각각이어서 그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 게다가 미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심리전 기구들을 해체한 상태에서 한국전쟁을 맞이했기 때문에 군의 심리전 조직체계 자체도 일사불란함과 거리가 먼 상태였다.<sup>20)</sup>

이를 염두에 두고 군 외부의 민간기관으로 유명한 것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육군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존스홉킨스대학 작전연구소(ORO, Operations Research Office)와 조지워싱턴 대학의 인력연구소(HumPRO, The Human Resources Research Organization)가 있었고,<sup>21)</sup> 공군 산하의 연구기관으로는 HRRI와 ‘모든 싱크탱크의 어머니’라 불리며 무려 28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sup>22)</sup> 그리고 워싱턴

19) Ron Robin, Ibid., pp.71~72.

20)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50, 2004, 372~374쪽.

21) ORO와 HumPRO에 대해서는 허은, 『6.25 전쟁과 미군심리전부대 자료』, 『미국소제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 2004, 384~385쪽.

대학 여론연구소의 리비어(Revere) 프로젝트<sup>23)</sup>가 있었다. 여기서는 대체로 사회과학 계통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들이 연구소의 전임 인력으로 활동하며 군부와의 연계 속에서 ‘작전연구(Operational Research)’의 성격이 강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sup>24)</sup> 사회과학의 이론과 방법이 채용되었다고는 해도 “현재 실제로 존재하는 작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sup>25)</sup>를 수행했고, 이 과정에서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인 야심이나 학계의 아카데미한 관심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았다고 하겠다.

한편 주제의 측면에서 본다면 프로젝트들은 다시 대략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공중전 등 군사 작전이 얼마나 유효했는지 그 심리적 효과를 조사하는 정통적인 심리전 작전연구, 사기연구가 있는가 하면, 전쟁의 초기 국면에는 UN군의 서울 수복 및 38도선 이북 북진을 계기로 남한과 북한 사회에 소비에트화가 미친 효과를 측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전 차원의 대응을 조언하는 조사연구도 있었다. 전쟁 후반부에는 주로 수용소의 포로들을 대상으로 중국 및 북한 사회에 대한 정보, 정치적인 태도와 심리전의 효과, 포로수용소의 내부조직과 운용방식 등을 조사하는 프로젝트들이 운영되었다.<sup>26)</sup> 학자들이 한국에 직접 파견되지는 않았지만 리비어 프로젝트처럼 공중에 살포된 뼈라가 언제, 얼마나, 어느 정도로 반복해서 공중 살포되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

22) 알렉스 아벨라, 유강은 옮김, 『두뇌를 팝니다: 미제국을 만드는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난장, 2010, 33~34쪽.

23) 크리스토퍼 심슨, 위의 책, 144~145쪽.

24) 작전연구 및 작전연구의 규정 및 특징에 대해서는 김태우, 『전쟁기의 과학과 평화: 한국전쟁기 미국 민간인 과학자들의 공군 작전 분석 활동』, 『한국과학사학회지』 36(3), 272~275쪽 참조.

25) LeRoy Brothers, “Operations Analysis in the U.S. Air Force”, Operations Analysis Division, Directorate of Operations, USAF, 1952,9, p. 4.

26) 기관별로 나누자면, 한국전쟁에서 ORO는 포로들을 대상으로 북한군 및 중공군의 투항과 이들 포로들의 정치적 태도,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심심리전의 효과를 평가하는 일련의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HumRRO는 전쟁포로와 포로수용소 관련 인력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포로수용소의 내부조직과 작동방식에 대한 메모를 작성했다. 후술할 HRRRI는 공산주의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심리전의 차원에서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는 2권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간 기관은 아니지만 사회과학의 훈련을 받은 민간인 조사관에 의해 북한 현지에 대한 조사보고가 수행했던 미 국방부 OIR의 보고서도 넓게 보면 HRRRI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된다. 한국전쟁 당시 다수의 인원을 파견하여 미 제5공군의 작전분석실과 연계해서 활동했던 랜드연구소는 전쟁 초기에는 미 공군의 항공 공격이 미치는 결과를 분석하였고 후반기에는 중공군의 정치적 조직 및 사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되는지, 그 최적의 모델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공동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sup>27)</sup>

많은 연구들이 다룬 바 있는 HRRJ 프로젝트는 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연구자의 개별성, 그리고 사회과학의 학문적 특성이 도드라진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론 로빈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설립된 후발주자 미 공군은 심리전의 거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자, 특히 ‘행동과학의 추종자’를 끌어들이는데 적극적인 태도를 취했다.<sup>28)</sup> 육군에 비해서 심리전 작전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인력 수배에도 어려움을 겪는 만큼, 학계에서 구축된 학문적 권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약점을 보완하려는 전략이었다. 공군 산하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공군대학 HRRJ가 전임 연구인력의 확보 이외에도 슈람, 라일리, 클럭혼 등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심리전에서 능력을 발휘했던 대학계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열을 올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HRRJ의 ‘소비에트화’ 프로젝트는 ‘방문교수들’<sup>29)</sup>이 주축이 되어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로 출범했다. 연구진은 모두 네 사람이었는데 그 중 세 사람이 외부의 대학교수였고, 이들이 보고서의 집필을 전담했다. 연구소 외부의 사회과학자들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것이다.

게다가 방문교수 중 두 명은 당대 사회과학, 특히 행동과학 분야에서 주도적 인물이었다. 가장 유명했던 것은 역시 ‘언론학(Communication Studies)’라는 학문분과를 주창했던 창시자 윌버 슈람(Wilbur Schramm)이다. 그는 HRRJ프로젝트의 사실상 책임자를 맡았다. 영문학자로서 학문적 경력을 출발한 슈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심리전 연구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언론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드는 작업에 뛰어들었다. 아이오와대학과 일리노이대학의 언론학과, 일리노이대학 언론연구원(Institute of Communication's Research)은 그의 작품이었다.<sup>30)</sup> 론 로빈이 지적했듯이 그는 당시 “행정적

27) Ron Robin, *Ibid.*, pp.100~119.

28) Ron Robin, *Ibid.*, p.50.

29) Ron Robin, *Ibid.*, p.75.

30) 슈람의 상세한 이력 및 언론학 성립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는 윌버 슈람, 스티븐 H. 채피·에버릿

능력에서 엄청난 명성을 얻고 있었다.” 다만 문제는 연구자로서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처졌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가 한국행을 결심한 동기였다. 한국전쟁이라는 현장은 슈람 자신이 당시 지지하고 있던 이론, 즉 ‘커뮤니케이션의 제한적 영향’ 이론(weak theories of communication)을 검증하는 절호의 무대로 보였던 것이다.<sup>31)</sup>

그렇다면 슈람이 지지했던 ‘제한적 영향’ 이론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간단히 말하면, 언론 매체를 지나치게 강력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강한 영향’ 이론에 대한 반대라고 할 수 있겠다. 당시는 라디오 등 전자 대중매체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들 언론매체가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여론을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이 크게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슈람을 위시한 행동과학의 추종자들은 이런 통념과는 달리 언론매체에 그런 조작과 지배의 힘은 없다고 주장했다.<sup>32)</sup> 그저 잘해봐야 원래 가지고 있던 의견을 강화시키는 정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것은 매체의 탓이 아닐 수 있다. 도리어 청취대중의 심리적, 사회적 상태가 변해서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그 심리적 상황을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였다. 국가권력에 의해 신문, 라디오 등 언론매체가 독점되고 따라서 전달하는 메시지도 통제되는 소비에트 사회의 상황은 ‘제한적 영향’ 이론을 검증하는 훌륭한 실험적 조건이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이런 조건에 부합했다.<sup>33)</sup> 당시 서울은 1950년 6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소비에트 정부의 점령에서 막 벗어난 참이었다. 소련의 소비에트 사회통제가 점령지 서울에서 어떻게 작동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예외적인’ 장소였다. 한국의 중남부에는 북한군에 의해 점령되었다가 수복된 다수의 농촌지역도 있었다. 덧붙여 UN군이 북상하면서 5년의 소비에트화를 경험한 북한사회에 대한 조사 가능

로저스 편, 임영호 역, 『언론학의 기원』, 컬처북, 2014, 230~277쪽을 참조

31) Ron Robin, Ibid., p.76.

32) Ron Robin, Ibid., p.75.

33) David C. Engerman, *Know Your Enemy: The Rise and Fall of America's Soviet Experts*, Oxford Press, 2009; 김일환·정준영, 위의 논문, 287쪽; 류기현, 위의 논문, 92~93쪽.

성도 열렸다. 소련사회가 ‘철의 장막’ 뒤편에 가려져 있던 상황에서 한국은 전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조사 가치가 큰 필드로 급부상했다.<sup>34)</sup>

론 로빈은 슈람이 공동연구의 파트너로 존 라일리(John W. Riley, jr)를 선택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하버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라일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육군 심리전부에 근무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1950년 당시 럿거스대학에서 사회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었던 라일리는 학계에서는 행동과학의 사회학적 응용과 관련하여 핵심 인물로 간주되고 있었다.<sup>35)</sup> 슈람과 더불어 제한적 영향 이론을 검증하는 데 라일리가 적임이었다는 론 로빈의 추정은 일리가 있다. 훗날 그들은 HRRI 프로젝트의 성과를 기반으로 두 편—그 중 한편은 HRRI의 심리전 부서 책임자 프레드릭 윌리엄스(Frederick W. Williams)와 3인 공저)—의 학술적 사례연구를 학계의 대표적인 언론학, 사회학 잡지에 발표했으며,<sup>36)</sup> 소비에트 경험 사례를 번역해서 1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sup>37)</sup> 한국에서 돌아 온 이후에도 라일리는 ‘제한적 효과’ 이론을 변용해서 다양한 사회학적 상황에 적용하는 연구를 계속했다.<sup>38)</sup>

그런데 슈람과 라일리가 가졌던 행동과학의 연구자로서의 야심은 단순히 순수 이론의 측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었다. 제한적 영향 이론은 대중매체 그 자체보다는 대중매체를 통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조건에 놓였는지에 주목한다. 개인들의 판단과 그 판단들의 합(합)으로서 여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바뀌는 것도 그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를 통해 바뀌는 것도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요컨대 이들의 사회과학은 철저하게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의 입장에서 있다고 하겠

34) Ron Robin, *Ibid.*, pp.77~79.

35) Ron Robin, *Ibid.*, p.77; 존 라일리의 경력에 대해서는 김일환·정준영, 위의 논문, 292~293쪽

36) John W. Riley jr., Wilbur Schramm and Frederick W. Williams, “Flight from communism: A report on Korean refugees,” *Public Opinion Quarterly* 15(2), 1951, pp.274~286.; Wilbur Schramm,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as demonstrated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6), 1951, pp.757~766.

37) John W. Riley jr., Wilbur Schramm, *The Reds Take a City: The Communist Occupation of Seoul, with Eyewitness Accounts*,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

38) Ron Robin, *Ibid.*, pp.89~90..

다. 그리고 이것은 사회구조와 체제의 문제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에 불과하며 공산주의가 표방하는 이념과 메시지는 인간의 실질적인 삶과 행동을 바꿀 수 없는 이데올로기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행동과학은 처음부터 공산주의 사회 체제를 용납하기 어려운, ‘냉전’ 사회과학으로서의 정치성을 배태하고 있었다. 더욱이 행동과학은 인간의 판단과 행위를 개인의 심리적인 작용의 산물로 본다는 점에서 ‘심리학주의(psychologism)’의 입장에 선 설명방식이기도 했다. 이것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맥락과는 무관하게 인간의 판단과 행위를 조작 가능한 변수들의 심리적 작용으로만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장의 역사적 맥락, 문화적 차이, 구조적인 효과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게다가 이런 변수들은 계측되고 통제되는 심리적 척도로 치환된다. 행동과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쟁수행, 특히 심리전의 수행과 깊은 관련 속에서 성장했던 만큼, 이론 그 자체가 아군의 사기를 높이고 적군을 아군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는 심리전의 기획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HRRI 프로젝트에서 냉전사회과학의 조사연구와 심리전의 작전수행이 표리일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했다. 소비에트 체제를 경험한 사회에서 ‘제한적 영향 이론’이 입증된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명백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언론매체를 ‘독점’하고 선전 메시지를 ‘집중’하여 선전효과를 강화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대중들의 심리와 행동을 조작해낼 수는 없다는 것이다.<sup>39)</sup>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동기와 이유에 대해서도 달리 볼 여지가 생긴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에 빠질 만 한 사람들이 빠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였다면 ‘선택적 친화력’이라 부를 만한 심리적인 동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여론주도층의 설득과 선동을 만나면 공산주의자가 된다.<sup>40)</sup> 론 로빈에

39) Ron Robin, Ibid., p.82

40) Ron Robin, Ibid., p.84

따르면, 전통적인 ‘여론주도층’ 개념이 소환되는 것은 이 지점이다. 여론주도층의 선동과 설득에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심리전의 수행은 이런 이론적 논의를 반대방향으로 진행시키면 된다. 청취 대중들의 심리적인 동기구조에 부응할 수 있는 선동의 메시지를 설계하여 배포하고,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론주도층이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이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 들일 방안을 모색한다. 이처럼 행동과학의 이론이 한국전쟁이라는 현장에서 입증되는 것 그 자체가 심리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술적인 작업으로 치환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론 로빈에 따르면, 그들에게 한국전쟁이라는 시공간은 “미국의 행동주의 패러다임이 낮은 외국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검토”하는 무대였으며, 이 낮은 공간을 자신들에게 친숙한 개념과 용어로 설명“해야 할 대상이었다.<sup>41)</sup>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그 역사, 구조, 문화를 따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것이야말로 도리어 이들 인간행동을 보편적인 이론틀에 입각해서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 실패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sup>42)</sup>

### 3. 심리전의 인식론과 전쟁의 현장성

이처럼 론 로빈은 HRRI 프로젝트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한국전쟁이라는 현장에 뛰어 들었던 미국의 사회과학자들이 행동과학 패러다임과 심리전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이라는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행동과학이라는 새로운 사회과학과 냉전시대의 심리전 수행은 마치 ‘이론과 실천’과 같은 관계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한국전쟁이라는 현장, 그리고 거기서 제기되는 역사적 맥락, 문화적 차이, 지속되는 구조 등은 이론의 인간행동에 대한 객관적 언어가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들은

41) Ron Robin, Ibid., p.78

42) Ron Robin, Ibid., p.78.

“어떤 사회를 연구하는데 별도의 사회과학은 필요 없다”는 당대 사회과학자들의 확신을 공유하고 있었다.<sup>43)</sup> 따라서 HRRRI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과학자들이 정작 현장인 한국사회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그들의 이론적 입장에서는 당연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냉전의 현장에서 검증될 이론이 어떻게 행동과학이 전후 사회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는가의 질문이 될 터인데, 론 로빈은 HRRRI의 프로젝트가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슈람과 라일리가 프로젝트를 통해 검증하려 했던 ‘제한적 영향 이론’과 소비에트사회에서의 언론매체 분석은 사실 하버드대학의 사회학자 알렉스 인켈스(Alex Inkeles)의 연구를 답습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sup>44)</sup>

물론 인켈스의 연구는 소련에서 탈출한 정치적 망명자들에 대한 구술조사에 바탕을 둔 연구였다. 소비에트화의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슈람 등 HRRRI의 연구자들과 현장성의 차이는 현격했다. 그런데 슈람과 그의 동료들은 행동과학의 관점에서 현장의 맥락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전략을 취했다. 이들에게 북한의 사회주의 정권은 동유럽에서 발생한 ‘소비에트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의 일부일 뿐이다. 북한은 소련 소비에트 정권의 확장·이식이고, 남한의 소비에트화는 북한 소비에트화의 반복이다.<sup>45)</sup> 심지어 농촌의 소비에트화에 대한 인류학적 조사를 수행할 때조차도 그들은 현장의 맥락은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역사적인 시간보다 개인적인 시간(personal time)에 주목하는 가운데 개인의 심리적인 성향, 집단 내부의 심리적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이 시도된 것이다. HRRRI의 사회과학자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구조는 행위자들의 심리적 동기를 촉발하는 배경 이상의 의미는 없었다.<sup>46)</sup> 하지만 이렇게 되자 인켈스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최대의 이점이라 할 현장성도 같

43) Alex Inkeles, “Understanding a Foreign Society : A Sociologist’s View,” *World Politics* 3, 1951, p.251.

44) Ron Robin, *Ibid.*, p.88.

45) HRRRI, “A Preliminary Study of the Impact of Communism on Korea”, Air University, Maxwell Air Force Base, 1951, pp.126~127.

46) Ron Robin, *Ibid.*, pp.79~80.

이 사라졌다. 그저 하버드대학 러시아연구소의 소비에트학(Sovietology) 연구자들의 성과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슈랍과 라일리는 HRRRI 보고서를 근간으로 두 편의 사례연구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독창성 없는 성과에 대한 반향은 미미했다. 그런데 론 로빈은 HRRRI 프로젝트의 독창성 없음에 오히려 주목한 듯이 보인다. 의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학문의 전사(academic warrior)들은 한국전쟁이라는 살육의 현장, 그 낮은 풍경에 행동과학의 친숙하면서도 중립적인 개념을 덧씌우는 방법을 발견한 듯 보인다고 쓰고 있기 때문이다.<sup>47)</sup> 결국 구체적인 학술적인 성과와는 별개로 HRRRI와 같은 프로젝트는 행동과학이 한국과 같은 미지의 땅에 미국인 자신들의 질서나 시선을 부과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론 로빈은 ‘행동과학의 이론과 냉전의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HRRRI 보고서를 비롯하여 한국전쟁기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 HRRRI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라, 보고서 자체의 작성경위를 지성사적인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분석한 것은 그와 심슨의 연구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고, 최근까지도 후속적인 연구는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론 로빈의 연구는 크리스토퍼 심슨의 연구와 더불어 관련 연구의 출발점으로 의미는 여전하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 아쉬운 지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서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한국전쟁을 다루고는 있지만 한국전쟁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 연구가 한국전쟁의 해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다소 억울한 지적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객관성과 가치중립을 표방하던 미국의 주류 사회과학이 실은 전쟁의 자양분 속에서 성장했으며 냉전적 대립을 지속시키는데 여전히 기여하고 있음을 폭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자연과학을 모델로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던 행동과학 패러다임의 연구

---

47) Ron Robin, *Ibid.*, pp.93

들, 언론학과 사회학 분야의 연구들이 비판의 주된 표적이었다. 물론 방법론적인 차이는 있었다. 크리스토퍼 심슨의 연구는 심리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부와 군부, 측면에서 후원하는 각종 재단들, 이들 후원자로부터 보다 많은 자금지원, 안정적인 후원을 획득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던 여러 형태의 대학·학계의 조직들, 그리고 거기서 활동했던 라스웰, 슈람 등을 비롯한 언론학 학자들이 어떻게 상호 결합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이었다. 군부와 학계를 가로지르는 제도적, 재정적, 인적 네트워크를 그려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반면에 론 로빈의 연구는 이러한 심리전의 네트워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행동과학 패러다임의 부상을 어떻게 뒷받침해주었는지를 규명하려는 연구였다. 사회과학자들의 구체적인 활동들이 다루어졌고, 이 활동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과학의 이론 및 방법론을 개발하고, 변용하고, 검증하였는지가 검토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슈람 등 HRRRI의 사회과학자들 스스로가 현장에서 제기되는 역사적 맥락, 문화적 차이, 지속되는 구조 등을 보편적인 이론 정립을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연구대상인 냉전 사회과학자들 스스로가 한국전쟁 그 자체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론 로빈의 경우 이들 사회과학자들의 현장감 결여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행동과학 패러다임의 특징과 관련해서 설명할 뿐, 이들이 전쟁의 '현장'에서 원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무슨 방법론에 입각해서 획득하였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연구가 어떻게 실제 전쟁의 현상에서 활용되었는지를 비판적으로 규명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특히 후자는 한국전쟁 당시 심리전의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하는 과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한국전쟁 당시에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프로젝트는 실제 심리전 작전의 수행에서 어느 정도로 참고가 되었을까? 이 문제에 특히 주목했던 것이 정용욱의 연구이다. 물론 론 로빈도 사회과학자들의 한국전쟁 프로젝트가 심리전예의 활용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하지만 행동과학 이론의 한계와 쟁점이 심리전의 상황에서 실제 응용에 미칠 문제점을 추정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사회과학자의 편에서 심리전예의 응용가능성

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심리전 작전을 수행하는 편에서 사회과학의 프로젝트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전쟁 당시 뼈라심리전의 구체적 양상을 추적하는 한편으로 이런 뼈라 심리전 배후의 인식론적 토대를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에서 찾아 보려는 정용욱의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시도라고 하겠다.

먼저 그가 주목했던 것은 미군 뼈라작전에 즐겨 등장하는 소재인 ‘북한 꼭두각시론’(혹은 가짜 김일성론)이었다. 1946년 초반 신탁통치 파동을 전후해 등장한 ‘꼭두각시론’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론적인 체계화를 거쳐 냉전적 인식의 틀로 고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정치적 공세로 출발했을 ‘꼭두각시론’이 불식되는데 40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정용욱은 그 계기로 한국전쟁기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지목한다.<sup>48)</sup> 이미 설명했듯이 한국 전쟁 초기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는 주로 종전까지 베일에 가려졌던 소비에트 체제를 이해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OIR보고서나 HRRI보고서는 1950년대의 소비에트학(Sovietology)을 답습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후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북한 및 공산권 사회를 인식하는 중요한 준거가 되었다. 미군 뼈라작전의 배후에 놓인 북한인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정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다.<sup>49)</sup> 가령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실이 1950년 10월부터 3개월간 현지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작성한 OIR보고서는 “해방 직후 북한사회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풍부한 서술과 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북한 정권을 소련의 이식정권으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결론은 논의의 전제이기도 했다.”<sup>50)</sup> 당시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소비에트 연구를 북한 사례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점, 북한사회를 기본적으로 소련사회의 아류,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HRRI 보고서와 인식을 같이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군의 뼈라작전의 메시지는 ‘꼭두각시론’으로 일관하는 것도 아니

48) 정용욱, 앞의 논문, 122쪽.

49) 정용욱, 앞의 논문, 124쪽.

50) 정용욱, 앞의 논문, 124쪽.

었다.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를 소련의 꼭두각시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는 대단히 공세적인 정치적 메시지도 있는가 하면, 항복의 물질적인 이익, 후방 가족의 곤경, 신체적 위안에 호소하면서 개인의 심리를 움직이려는 메시지도 공존했다.<sup>51)</sup> 실제로 일부 행동주의 사회과학자들은 정치적 공세 위주의 심리전 작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신체적 생존 기회에 초점을 맞추는 비이데올로기적인 호소가 훨씬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옹호, 공산주의 비판, 김일성 공격과 같은 대단히 공격적인 메시지부터 투항권유, 향수자극, 인간적 대우, 신분적 보장, 물질적 환대 등 다양한 차원의 신상차원 메시지까지 모순적인 메시지가 전단으로 동시 살포되는 상황이 심리전의 전략으로 채택되었던 것이다.<sup>52)</sup> 그런데 흥미로운 지점은 론 로빈이 분석한 바 있듯이 HRRRI 프로젝트는 ‘제한적 영향’ 이론을 지지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심리작용에 초점을 맞춘 심리적 공작을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정용욱은 이러한 모순적 공존을 미국의 사회과학자들, 특히 소비에트 전문가들의 이중적 인식작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이중적 인식작용이 ‘심리전’을 그저 전쟁의 한 양태가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반공주의 인식의 경계가 쳐지고, 그 안에서 이미지가 고정되며, 내용적 도색이 이루어지는 과정”<sup>53)</sup>으로 만든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정용욱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쟁에 참여했던 민간인들의 활동, 그 중에서도 전문성을 지향하는 학자들의 ‘개입’에 주목함으로써 한국전쟁 연구, 나아가 심리전 연구의 지형을 넓혀주고 있다. 나아가 심리전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피아식별의 정치적 공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실천과 결합하여 세계 인식의 도식으로서 실체성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적지 않다. 그런데 선구적 작업으로서 의미가 적지 않은 만큼이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하다. 확실히 이 연구는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한국전쟁의 심리전, 그

51) 정용욱, 앞의 논문, 126쪽.

52) Ron Robin, *Ibid.*, pp.102~104

53) 정용욱, 앞의 논문, 2004, 131쪽

중에도 빼라심리전과 연관시킨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전 프로젝트와 미군의 빼라 심리전 작전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한다. OIR보고서와 HRRI보고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검토되지만, 여기서 드러나는 북한 인식은 미군 빼라에서 드러난 적 인식과 유사성의 관점에서 비교하는데 그친다. 실제로 미군 빼라를 맡았던 심리전 담당자들이 이들 보고서를 참조했는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는다. 대단히 흥미로운 상관성이지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필자는 이 지점을 “심리전의 인식론”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표현하고 만다.

나아가 이들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심리전’이라는 차원 속에서 포착하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제약도 존재한다. 사실 이것은 크리스토퍼 심슨이나 론 로빈의 연구에서도 봉착하는 문제인데, 이들 연구는 냉전적 지식생산의 중심에 ‘군학복합체(Military-Academic Complex)’라는 유착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군학복합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지식을 구체적으로 생산해 내는지, 이렇게 생산된 지식이 이후 문화냉전의 상황에서 어떤 지식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심리적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아카데미한 측면과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제약이 명확한 현장의 상황에서 어떻게 타당한 자료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동료 연구자들의 신뢰를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 등도 같은 맥락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이들 심리전 프로젝트가 어떤 의도로 발족했으며, 어떤 사회과학자들이 여기에 동원되거나 관여했는지, 그 의도의 측면을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이들 민간인들이 사회과학자로서 훈련받았고, 게다가 상당수는 미국 유수의 대학 교수 혹은 연구자로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군사적 이해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는, 사회과학자로서 그들의 아카데미한 관심은 심리전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축된 지식이 심리전이라는 ‘생산의 맥락’

이 제거된 이후에는 어떻게 아카데미한 사례 연구의 성과로서 본국 학계에 보고되고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사회과학적 조사의 이면들

그런 맥락에서 HRRI의 보고서를 통해 연구의 실제 과정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했던 김일환·정준영의 작업은 여러모로 흥미로운 시도다. 기존의 연구가 ‘행동과학 패러다임의 현지 적용(론 로빈)’이나 ‘빠라 심리전의 인식론(정용욱)’의 차원에서 HRRI의 보고서를 독해했다면, 이들은 HRRI 연구팀이 ‘자료’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활용했던 다양한 기법들, 예컨대 군사적 심문, 한국인 주민과의 인터뷰, 서베이를 통한 계량적 분석, 인류학적 현장연구 등에 주목한다. 다시 말해, 심리전의 보고서 속에서 “조사과정에 대한 정보를 남겨서 산출된 결과를 높이는 학계 특유의 방식”<sup>54)</sup>을 확인하는 작업이라 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전’이나 ‘행동과학’으로 국한되지 않는, 냉전 사회과학 특유의 존재방식을 묻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냉전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었을까? 냉전사회과학의 이론이 한국에 적용된다는 차원과는 별도로 한국전쟁은 이들 냉전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HRRI에 참여한 연구자들에 한정한다면, 연구관심이나 경력에서 한국전쟁이 차지하는 의미를 강하게 도출하기가 쉽지 않다고 실토해야 할 듯하다. 김일환·정준영도 지적하고 있지만, HRRI의 프로젝트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수행된 것이고, 참여한 사회과학자들도 기본적으로는 대학 소속의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설명했다지만, 슈랍과 라울리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학술 활동으로 저명했던 연구자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전쟁의 경험에서 새로운 연구관심을 발견했다는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론 루빈이 지적했듯이, 이

54)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284쪽.

들은 제한적 영향 이론을 맥락이 제거된 한국 사례에 적용해서 타당성을 확인했다고 믿었고, 이를 다시 중심부의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작업을 계속했을 따름이다. 인류학자 켈젤은 앞의 둘과 학문적 이력이 달랐지만, 일본을 필드로 하는 인류학자라고 할 수 있었고, 그의 현지조사 또한 그런 연장선상에서 진행된 측면이 강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쟁이 이들의 연구관심이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사회과학’에서 한국전쟁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다. 단기간의 짧은 조사 프로젝트를 했지만 이들은 ‘한국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군軍(-산産) - 학學 복합체”를 존속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믿었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전 지구는 적대적인 두 개의 냉전 진영으로 급속하게 분할되었다. 양자 사이의 장벽이 높아지자 적대진영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확보, 우리진영을 결속시키는 요소들의 파악 등은 ‘심리전’이라는 노골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공중(公衆)의 관심 속에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 발견된 ‘사회과학’의 쓸모는 냉전시기에도 여전했다. 미국의 ‘사회과학’은 한국전쟁 덕분에 전쟁과 무관한 일상의 영역에서도 군부와 정부라는 안정적인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 사회과학자들이 ‘한국전쟁’의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부터 효용성이 입증되었던 수량화 기법, 다시 말해 계량화와 수확화<sup>55)</sup>가 HRR 프로젝트처럼 단기간에 소기의

55) 사회학의 수량화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추론통계(inferential statistics)와 수학적 모델(mathematical model)구성. 전자는 무작위 추출된 표본 집단을 가지고 원래집단, 즉 모집단을 추정하는 통계학의 한 분야를 뜻하는데, 집단의 규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집단 전체를 분석해야 하는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방식의 유의도 검정(Significance Testing)을 발달시켜왔다. 한편 수학적 모델 구성이란 모집단이 확률분포를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하여 통계적 측면에서 모델화한 통계적 모델구성과 달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미분방정식 등 수학적 언어를 사용하여 예측가능한 주요 지표들의 움직임으로 기술하는 모델구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과학에서 ‘수량화’는 대체로 ①측정 차원에서 관찰의 숫자화, ②분석 차원에서 숫자화된 관찰의 요약 통계(평균, 분산, 상관관계, 곡선맞춤curve fitting 등) ③ 모델 구성 차원에서 이론적 실체들의 수확화 등을 들 수 있다. 이기홍, 『양적 방법은 미국사회학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사회와 이론』 32, 2018, 8쪽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경우에도 유용하다는 사실이었다. 김일환·정준영에 따르면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회학자 라일리가 주도했던 피난민에 대한 설문조사다. 부산 인근 34개 피난민수용소의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표집 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분적으로는 부산 시내를 다니는 행인들에게 설문지를 돌렸다. 모두 1319명의 데이터를 확보했는데 조사는 연구단이 한국을 떠나기 일주일 전, 즉 1951년 1월 7일 전후에 이루어졌다.<sup>56)</sup>

[표 1] 피난민 연구의 개요 및 변수<sup>57)</sup>

독립변수	연령, 고향, 가족구성, 계층적 지위 등
종속변수	<p><u>피난의 주된 이유</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 중 일부가 남한 군경</li> <li>2. 반공주의로 '낙인'찍힘</li> <li>3. 강제 노동, 자유의 부족</li> <li>4. 고율의 세금과 공물</li> <li>5. 북한 인민군 징집에 대한 두려움</li> <li>6. 전쟁에 대한 일반적 공포</li> <li>7. 지역 관청의 권고</li> <li>8. 친구나 이웃을 따라</li> <li>9. 중국인들에 대한 공포</li> <li>0. 기타 이유</li> </ol> <p><u>피난의 대안</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하로 내려가 투쟁했을 것</li> <li>2. 피신, 잠적했을 것</li> <li>3. 협력했을 것</li> <li>4. 확실하지 않음</li> <li>0. 기타</li> </ol>

집작할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대단히 졸속으로 이루어진 조사였다. 처음부터 피난민을 ‘공산주의로부터의 탈출자’로 설정하고 그 이유를 계량화된 질문지를 통해 계량적으로 추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애초 HRRRI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점령한 북한지역에 대한 심층 조사를 통해 5년간의 소비에트가 북한사회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는지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국전쟁의 전황(戰況)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했다. 이미 귀국일자도 정

56) HRRRI, Report No.1, pp.283~286.

57)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304쪽에서 재인용.

해진 상황에서 이 조사는 고객인 군(軍)의 요구를 충족시킬 요량으로 결행되었을 공산이 크다. 그런데 그 결과는 뜻밖에도 모두에게 만족을 주었다. 편향된 시각에서 의도된 답변을 도출하기 위해 이루어진 조사의 수량화된 결과는 ‘자유 피난의 신화’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로 유용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과학자들의 고객인 정부와 군부는 수치로 표현되어 ‘객관적’으로 보이는 정보를 선호했다. 애초 수학적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군사적 목표를 실현하는 최적의 방안을 찾는 ‘작전 연구(Operations Research)’에서 개발된 것이기도 했다. 작전 연구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창안하는 능력이 아니라 전쟁 승리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예측과 통제의 공학적 기술(engineering-based techniques) 능력을 증시했다.<sup>58)</sup> 그리고 예측과 통제의 표현으로서 계량화 기법은 의회의 통제 하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미국의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50년대 미국의 사회과학계에서 유사자연과학 풍의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s)이 득세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냉전적 후원체제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sup>59)</sup>

이것은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회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기홍이 지적하듯이, 미국의 사회학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인식론적으로 분산적인 학문분과(splintered discipline)에서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수량적, 수학적 기법들이 헤게모니적으로 지배하는 학문분과로 변모했다.<sup>60)</sup> 그리고 이런 변모에서 학문분과를 넘어서는 결정요인(extra-field determinant)은 돈, 특히 2차 대전 기간 및 그 이후 사회학에 대규모로 쇄도한 연구비였다.<sup>61)</sup> 돈을 제공하며 외부세력이 사회과학에 요구한 것은 사회적 삶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지향하는 사회학이 아니라 예측과 개입과 통제를 위한 ‘사회공학’, ‘사회기술학’이었다.

58) T. J. Barnes, “Geography’s underworld: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mathematical modelling and the quantitative revolution,” *Geoforum* 39, 2007, pp.3~16

59) C. E. Schorske, “The new rigorism in the human sciences, 1940-1960,” *Daedalus* 126(1), 1997, p.2

60) 이기홍, 위의 논문, 48쪽.

61) George Steinmetz, “American Sociology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in Calhoun, *Sociology in America: A Histor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pp.314~315.

이처럼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회는 새로운 이론적 패러다임,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수량적·수학적 기법이 사회과학 방법 일반을 체계모니적으로 지배하는 사태가 도래한 결과였다. 특히 전쟁은 에프검정(F-test), 카이제곱(chi-square),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거트만 반응도(Guttman scalogram) 등의 여러 가지 새로운 수량화 기법들을 시험할 수 있는 실험장이었다. 게다가 이런 수량화의 기법들은 학술지식 내에서 정보들의 지역적 맥락을 제거하고 수학적 논리구조 아래에서 상황을 추상화하는 경향성도 강하다. 수학적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추상성이 높을수록, 보다 보편적인 것이라는 공리적(公理的) 가정이 아카데믹한 학술담론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도 수확화로 대표되는 냉전 사회과학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주변부인 한국전쟁의 체험이 중심부인 미국의 학계에서 ‘냉전’사회과학의 일부로 유통되는 상황 속에서 잘 드러난다. 가령 HRRRI 프로젝트는 북한에 의해 추진된 ‘소비에트화’의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한국전쟁의 심리전에 활용한다는 애초의 목적에 충실한 보고서가 작성되면서 마무리되었지만, 참여한 사회과학자들에 의해 미국 ‘본국’의 사회과학 학술장(學術場)에서 이후 또 다른 형태로 유통되는 양상을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이 3명의 연구자 중 슈람과 라일리는 윌리엄스와 함께 HRRRI보고서 내용의 일부를 1951년에 두 편의 논문으로 미국의 사회과학계에 발표했던 것이다. 『계간 여론』지에 게재된 「공산주의로부터 탈출: 한국인 피난민에 관한 리포트」는 원래 HRRRI 보고서 1권의 5장을 거의 그대로 수록한 것이며, 『미국사회학평론』지에 발표한 「소비에트화된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한국에서의 증명」은 보고서 1권 2장을 사회학 논문 형식으로 변용한 것이었다.

[표 2] HRRIB고서 1권의 목차 및 근거자료<sup>62)</sup>

목차	제목	저자	근거자료(*는 기존자료)	학계 발표
1장	요약	Schramm	-	
2장	서울의 소비에트화	Schramm Riley	남한 공직자 60명 인터뷰 서울주민 50여명 인터뷰 *ADVATIS 전쟁포로 심문보고서 *남한 정부자료, *북한 노획문서 등	American Sociological Review誌
3장	농촌 공동체의 소비에트화	Pelzel	*웬스(Weems)소령의 특별보고서 (농촌 주민 인터뷰)	
4장	북한의 소비에트화	Schramm	*북한 포로 1250명 심문보고서 북한 출신 민간인 125명 인터뷰	
5장	소비에트 탈출자 연구	Riley	피난민 1319명 설문조사	Public Opinion Quarterly誌
부록A	사회학적 설문조사지		*(ADVATIS심문보고서 양식차용)	
부록B	북한과 남한의 예술가 조직 및 활동	김재원		
부록C	북한과 남한의 정치적 재교육 전략	유진오		

현지에서의 군학복합체의 지식생산의 결과물은 본국으로 환류되어 ‘보편적인’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검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현지연구 결과에 대한 광범위한 ‘탈맥락화’를 동반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적한 대로이다. 『소비에트화된 국가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란 제목을 단 슈람과 라일리의 논문에서는 “1950년 겨울의 한국”이라는 연구의 시공간적 맥락은 지워지고 ‘소비에트화된 국가’라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묘사된다. 론 로빈과 정용욱도 지적하고 있듯이 행동과학의 추종자들이었던 HRRIB의 연구자들은 북한의 군사적 점령 정책은 소련의 청사진(master blueprint)의 복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할 것은 김일환·정준영이 지적하고 있듯이, 본국의 학술장에서 발표된 사례연구에서는 군과 연계되어 진행되었던 현지조사의 실제적 과정, 자료생산의 맥락들이 모두 철저히 은

62)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301쪽의 <표 2>를 보완한 것이다.

폐된다는 사실이다.<sup>63)</sup> 이것은 론 로빈이 지적했던 행동과학 연구자들의 보편지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근거 데이터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다. 슈람과 라일리는 자신들이 “75명의 공직자에 대한 인터뷰, 남한과 북한의 시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200명의 구조화된 인터뷰, 1300명의 전쟁포로들과의 인터뷰, 1400명의 피난민과의 인터뷰, 노획 문서, 공산주의 치하에 살았던 한국인들의 개인적 서사의 출판본”을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김일환·정준영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듯이, 인터뷰란 실은 포로의 심문보고서를 조작한 정보였다.<sup>64)</sup>

김일환·정준영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라일리와 슈람이 주도했던 일련의 연구 작업들은 군학복합체에 의해 생산된 현지의 지식이 탈맥락화되어 미국 본국의 사회과학계에 유통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정되는 사회과학 이론의 지위를 획득하면서 이론의 발생적 맥락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대상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일련의 과정들에 다름 아니었다.<sup>65)</sup> 사실 한국전쟁은 이들 연구자들에게 기존의 사회과학 이론의 보편적 성격을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 이상의 커다란 의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sup>66)</sup>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회과학 학술장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보편적’ 이론들에서는, 앞서 살펴본 한국전쟁기 현지연구 과정에서의 군의 개입, 강압적 방식에 의한 자료의 대량 생산, 이를 매개해준 주변부 지식인들의 흔적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대신하는 것은 ‘대중매체’,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여론 주도자’와 같은 객관적 사회과학의 개념들이다.<sup>67)</sup>

한국전쟁기 HRRI의 사례를 어디까지 일반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조심스럽지만, 이렇게 보면 미국의 ‘냉전’ 사회과학은 명시적인 ‘적’을 대

63) Schramm Wilbur and John W. Riley, jr, Ibid. p. 757

64)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298~301쪽

65) 김일환·정준영, 앞의 논문, 306쪽

66) 슈람은 자신의 1954년 편지에서,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논하면서, 그 사례 중의 하나로 한국전쟁기 전쟁포로들과의 인터뷰를 통한 연구 결과를 꼽고 있다. Wilbur Schramm(ed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4, pp.17~18.

67) Ron Robin, Op Cit, 90~93쪽.

상으로 한 지식의 체계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부 ‘현지’에서의 폭력적 과정을 통해 생산된 지식이 다시금 중심부 ‘본국’의 사회과학장으로 환류되는 과정을 은폐하는 지식의 체계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군학복합체의 활동과 밀접히 연계된 냉전기 미국의 주류 사회과학의 이론을 독해하는 것은, 이들의 학문 패러다임에 대한 내재적 이해, 혹은 이들 연구가 탄생하게 된 제도적 연결망들을 폭로하는 작업 뿐 아니라, 주변부에서의 연구 자료의 생산 및 이론의 적용을 통한 지식생산의 과정을 세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닐까.

## 5. 나가며 : 냉전사회과학의 문제의식과 한국전쟁

이상에서 이 글은 한국전쟁 당시 심리전의 일환으로 현지조사에 착수했던 미국인 사회과학의 활동에 주목하여 이러한 연구가 제기하는 쟁점과 문제점들을 검토했다. 단순히 군사적 이해관계로만 환원될 수 없는 이들 사회과학들의 심리전 프로젝트는 객관적 지식의 추구하고 지식의 실용적 응용 사이의 경계가 생각만큼 뚜렷하지 않은 냉전사회과학의 특징적 양태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국전쟁이라는 주변부의 현장에서 군사적인 의도를 가지고 창출된 지식은 어떻게 그 생산적 맥락을 탈각시키며 중심부의 사회과학계에서 명제적 용의 사례로 번역되는가? 나아가 다시 이렇게 입증된 사회과학의 명제화된 지식체계는 주변부의 냉전공간에서 어떻게 적(敵)을 식별하는 인식의 틀로 환류해 들어가면서 주변부 사회과학계의 제도화에 기여하는가? 이들 연구는 여전히 해명될 지점들을 더 많이 남겨두고 있지만, 한국전쟁의 경험이 어떻게 사회과학의 냉전적 전화와 연관되는지 종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볼 여지를 제공한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 보여 주었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은 중심부에서 확정된 원칙이 주변부에 기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통념과 합치되지 않는 지점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기존 연구들도 지적하고 있

지만, 한국전쟁의 충격이 사회학을 비롯해서 미국의 사회과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를 가늠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곧 이은 한국전쟁은 당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던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이란 지식체계의 국가적·사회적 유용을 검증하는 무대가 되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하면 이것은 전쟁이야말로 사회과학이란 지식체계가 지금과 같은 위상으로 도약하는 결정적 계기였기도 했음을 의미한다. 한국전쟁을 중심부의 사회과학이 주변부에 어떻게 적용되고 검증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회과학 역사와 관련하여 최근 유사한 취지의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sup>68)</sup> 1930년대까지만 해도 사회과학은 당시 유럽에 비해 주변부인 미국학계에서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었으며, 그것이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서유럽의 학계를 제치고 일약 중심적인 학제적 지식틀 혹은 학문체도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역시 전쟁동원이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미국의 참전으로 ‘과학 동원’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정부와 군부를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미국의 사회과학계에 또한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면서 “상황을 예측하고 정책결정을 보조”하는 등 국가가 제시하는 목표에 복무하는 사회공학적인 역할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한국전쟁이 중요해지는 것도 이 지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서 사회과학의 전쟁동원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전쟁이 종식된 이후 국가에 의한 체계적인 동원 시스템도 곧바로 해체되었다.<sup>69)</sup>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전쟁은 해체되었어야 할 사회과학의 동원 체제를 지속시키는데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아감벤(G Agamben)의 표현을 빌자면 “예외적 상황의 정상화”가 한국전쟁에서 시작되는 일련의 ‘냉전적 사건’ 속에서 확립되었다고 하겠다. 전쟁을

68) A. Abbott, A. & Sparrow, J. T. “Hot War, Cold War : The structures of sociological action, 1940-1955”. pp.282-313 in Calhoun, *Sociology in America : A Histor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T. J. Barnes, “Geography’s underworld :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mathematical modelling and the quantitative revolution”. *Geoforum* 39, 2007, pp.3-16

69) 크리스토퍼 심슨, 위의 책, 75쪽.

계기로 국가와 사회과학이 밀접하게 결합했던 예외적 현상은, 한국전쟁과 그 후과(後果)에 의해 더 이상 예외적일 수 없는 일상적 상황, 즉 현대 사회과학의 존재조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국가에 복무하는 사회과학 지식(social scientific knowledge in the service of the state)”이라는 전쟁동원의 모델이 전후 사회과학 지식 그 자체의 성격을 바꾸어 ‘냉전 사회과학’을 탄생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면, 한국전쟁은 과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을까? 한국전쟁이 어떻게 미국 사회과학을 냉전적으로 재편하는데 전기가 되었는지를, 심리전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인 사회과학자들의 활동을 통해 독해하려는 작업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을 냉전사회과학의 문제의식 속에서 독해하려는 이상의 작업이 기존 냉전사 연구의 흐름에서 어떻게 위치 지워질 수 있을지를 가늠하면서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먼저, 이러한 작업은 냉전사 연구의 흐름 중에서 ‘냉전지식론’의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경환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과학사연구자들 사이에는 지식의 생산과정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지식생산과 권력실행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의존을 풍부하게 그려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sup>70)</sup> 특히 이들은 냉전지식이 구체적으로 생산되는 경위에 주목했다. 이른바 ‘냉전지식론’이라 지칭될 만한 일련의 연구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냉전지식을 냉전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하는 수단 정도로만 간주하고 그 허구성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이들은 냉전적 지식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냉전의 주체와 대상이 동시에 구성될 뿐 아니라 상호 구성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이른바 공생산(co-production)’ 구조가 그것이었다.<sup>71)</sup> 요컨대 냉전지식과 냉전의 현실정치는 서로를 규정하는 관계이며 냉전문화의 확산 또한 이런 냉전지식이 지구적 차원에서 생산, 환류, 전유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화적 효과로 간주되는 것

70) 오경환, 『냉전사 연구의 궤적 - 정통주의에서 담론적 전회에 이르기까지』, 『사총』 95, 2018

71) 공생산 개념과 관련해서는 S. Jasanoff,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 Routledge, 2004를 참고.

이다.<sup>72)</sup>

한편, 이 연구는 냉전지식을 생산, 유포하는 제도적 장치들에 주목하여, 이들이 군부, 정부, 학계, 민간기업 등과 어떻게 유착되어 어떻게 냉전체제의 안정화와 확산에 기여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일련의 연구들의 성과에도 기대고 있다.<sup>73)</sup> 특히 한국전쟁 등을 계기로 본격화된 군부와 학계 사이의 유착관계를 제도적, 인적 네트워크로 분석한 크리스토퍼 심슨의 연구나 1945년 이후 미국의 대학이 국가안보기구와의 밀착을 통해 ‘연구대학(research university)’으로 팽창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형성된 사회과학적 지식의 승리가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승리로 이어졌음을 폭로한 ‘냉전대학(cold war university)’의 논의<sup>74)</sup>는 한국 학계에도 소개되어 한국전쟁기의 심리전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sup>75)</sup>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국내외의 연구들은 군부와 학계 사이에 구축된 유착관계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지만, 냉전지식의 장치와 네트워크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생산해내었으며, 이렇게 생산된 지식이 이후 냉전적 학지(學知, academic knowledge)로서 어떤 지식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본문에서 검토했듯이 HRRRI의 소비에트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면밀히 따라가면서 미국 사회과학자들의 특정한 아카데미한 관심이 어떻게 군사적 이해와 만나서 이른바 ‘심리전’ 프로젝트의 형태로 전쟁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는지, 그 현장에서 연구자는 무엇을 목격했으며 또 어떻게

72) 오경환, 위의 논문, 11~14쪽.

73) Daniel J. Kevis,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debate over postwar research policy, 1942-1945,” in *The Scientific Enterprise in America: Readings from Isis*, Ronald Numbers and Charles Rosenberg,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David Hounshell, “The Cold War, RAND, and the generation of knowledge 1946-62,”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27, 1997; Michael Hogan, *A Cross of Iron: Harry S.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1945-19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74) 노암 촘스키 외, 2001, 정연복 역, 『냉전과 대학: 냉전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 당대; 브루스 커밍스 외, 2004, 한영옥 역, 『대학과 제국: 학문과 돈, 권력의 은밀한 거래』, 당대, 2004.

75) 정용욱, 2009; 이입화, 2012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시도되었지만,<sup>76)</sup> 앞에서 검토했지만 여전히 출발점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한국전쟁 전후로 심리전의 맥락에서 수행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연구프로젝트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이 시도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체제가 촉발시킨 ‘사회과학의 국가복무’가 미국 사회과학계 전반에 행태주의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나아가 이것이 유럽 중심의 고전사회과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수량화와 수학적화를 요체로 하는 현대사회과학의 시대를 열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런 연구에서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은 냉전지식의 생산방식을 ‘예외상태의 일상화’로 만들었던 수많은 냉전의 사건적 연쇄 중 하나로만 설정될 뿐, 구체적으로 당시 미국의 사회과학계가 한국전쟁이란 역사적 사건, 그리고 이를 둘러싼 이론적, 전략적 쟁점들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으며, 한국 발(發) 지역사례연구가 미국 사회(과)학계라는 학술장을 어떻게 ‘냉전적으로’ 변형시키려 했는지 그 세밀한 메카니즘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드물었다. 한국전쟁의 경험이 어떻게 미국 사회과학의 일부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회과학을 어떻게 냉전적으로 변모시켰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모된 사회과학은 다시 주변부 한국의 사회과학 형성에 어떻게 환류(還流)해 들어가는지를 개별 사회과학자의 작업과 활동을 면밀하게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그려낸다는 것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

76) 김일환, 정준영. 위의 논문

## ■ 참고문헌

### 1. 자료

- HRRl, "Implications and Summary of a Psychological Warfare Study in South Korea", Air University, Maxwell Air Force Base, 1951.5.
- \_\_\_\_\_, "Preliminary Study of Impact of Communism Upon Korea: Psychological Warfare Report", Air University, Maxwell Air Force Base, 1951.5.
- U.S. Department of State, "North Korea: A Case Study of a Soviet Satellite," Office of Intelligence Research(OIR), Report No. 5600, 1951.5.20.
- \_\_\_\_\_, *North Korea: A Case Study in the Techniques of Takeover*,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1.
- Wilbur Schramm(eds), *The process and effects of mass communication*,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54.

### 2. 단행본

- 노암 촘스키 외, 정연복 역, 『냉전과 대학: 냉전의 서막과 미국의 지식인들』, 당대, 2001.
- 브루스 커밍스 외, 한영옥 역, 『대학과 제국: 학문과 돈, 권력의 은밀한 거래』, 당대, 2004.
- 알렉스 아벨라, 유강은 옮김, 『두뇌를 팝니다: 미제국을 만드는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난장, 2010.
- 윌버 슈람, 스티븐 H. 채피·에버릿 로저스 편, 임영호 역, 『언론학의 기원』, 컬처북, 2014.
- 이임화, 『적을 빨라로 물어라: 한국전쟁기 미국의 심리전』, 철수와영희, 2011.
- 이진숙, 『心理學文集』.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동창회, 1993.
- 크리스토퍼 심슨, 정용욱 역, 『강압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와 심리전, 1945~1960』, 선인, 2009.
- David C. Engerman, *Know Your Enemy: The Rise and Fall of America's Soviet Experts*, Oxford Press, 2009.
- James. Hershberg, *James B. Conant: Harvard to Hiroshima and the making of the nuclear age*. Knopf; 1993.
- John W. Riley jr., Wilbur Schramm, *The Reds Take a City: The Communist Occupation of Seoul, with Eyewitness Accounts*, Rutgers University Press, 1951.
- Michael Hogan, *A Cross of Iron: Harry S. Truman and the Origins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1945-1954.*,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Ron Robin, *The Making of the Cold War Ene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 S. Jasanoff, *States of Knowledge: The Co-production of science and the social order*, Routledge, 2004.

### 3. 논문

- 김성보, 『미국·한국의 냉전 지식 연결망과 북한 연구의 학술장 진입』, 『사이판SAI』 22, 2017.
- 김일환·정준영, 『냉전의 사회과학과 '실험장'으로서의 한국전쟁: 미공군 심리전 프로젝트의 미국인 사회과학자들』, 『역사비평』 115, 2017.
- 김태우, 『전쟁기의 과학과 평화: 한국전쟁기 미국 민간인 과학자들의 공군 작전 분석 활동』, 『한국과학사학회지』 36(3), 272~275쪽.
- 류기현, 『한국전쟁기 미 국무원 정보조사국의 북한 현지 조사와 북한연구의 태동』, 『6.25전쟁과 냉전지식체계』

- 의 형성』, 제55회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학술회의 자료집, 2020.
- 오경환, 『냉전사 연구의 궤적 - 정통주의에서 담론적 전회에 이르기까지』, 『사총』 95, 2018.
- 옥창준 · 김민환, 『사상심리전의 텍스트로서 한국전쟁 : 자유세계로의 확산과 동아시아적 귀환』, 『역사비평』 115, 2017.
- 이기홍, 『양적 방법은 미국사회학을 어떻게 지배하게 되었나』, 『사회와 이론』 32, 2018.
- 장세진, 『원한, 노스텔지어, 과학 - 월남 지식인들과 1960년대 북한 학지(學知)의 성립 사정』, 『사이공간SA』 17, 2014.
- 정용욱, 『6·25전쟁기 미군의 뼈라 심리전과 냉전 이데올로기』, 『역사와 현실』 51, 2004.
- \_\_\_\_\_, 『6·25전쟁기 미군의 심리전 조직과 전개양상』, 『한국사론』 50, 2005.
- \_\_\_\_\_, 『천막 속의 과학자들 : 냉전의 적'과 '동양사회' 사이에서』, 『한국정치사 콜로퀴엄』(2018. 11. 16),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 정준영, 『해방직후 대학사회의 형성과 학문의 제도화 : 학과제 도입의 역사사회학적 의미』, 『한국근현대사연구』 67, 2013.
- 허 은, 『6.25 전쟁과 미군심리전부대 자료』,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IV, 2004, 384~385쪽.
- A. Abbott, & Sparrow, J. T. "Hot War, Cold War : The structures of sociological action, 1940-1955".  
in Calhoun, *Sociology in America : A Histor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 Alex Inkeles, "Understanding a Foreign Society : A Sociologist's View," *World Politics* 3, 1951.
- C. E. Schorske, "The new rigorism in the human sciences, 1940-1960," *Daedalus* 126(1)2, 1997.
- Daniel J. Kevis,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 and the debate over postwar research policy, 1942-1945." in *The Scientific Enterprise in America : Readings from Isis*, Ronald Numbers and Charles Rosenberg.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6.
- David Hounshell, "The Cold War, RAND, and the generation of knowledge 1946-62."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27, 1997.
- George Steinmetz, "American Sociology before and after World War II" in Calhoun, *Sociology in America : A History*.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2007, pp.314~315.
- Henrika Kuklick, "A 'Scientific Revolution' : Sociological Theory in the United States, 1930-1945," *Sociological Inquiry* 43, 1973.
- John W. Riley jr., Wilbur Schramm and Frederick W. Williams, "Flight from communism : A report on Korean refugees," *Public Opinion Quarterly* 15(2), 1951.
- LeRoy Brothers, "Operations Analysis in the U.S. Air Force", Operations Analysis Division, Directorate of Operations, USAF, 1952,9.
- T. J. Barnes, "Geography's underworld :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mathematical modelling and the quantitative revolution," *Geoforum* 39, 2007.
- Wilbur Schramm, and John W. Riley. jr., "Communication in the Sovietized state, as demonstrated in Korea,"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6,) 1951.
- William Sewell, "Some Reflections on the Golden Age of Interdisciplinary Soci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15, 1989.

## Korean War and ‘Cold War’ Social Scientists

–How did the experiences of the Korean War become part of the Cold War social sciences?–

Jung, Joon Young

This paper analyzes the historical process of American social scientist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stablish the cold war social science. The case of analysis is the research project conducted by the Human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HRRI) of the U.S. Air University in the Korean War. The war mobilization of academic knowledge was terminated by the end of World War II, but with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social science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serve the state again. At the request of the army, American social scientists carried out the projects to collect and analyze data on the battlefield.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processed by the methods of social science and published as academic papers in the social science journals. Even in war mobilization, the typical process of academic research, “project ordering-field research-report preparation-submission of research paper”, worked normally. What is intended to be analyzed in this paper are points of reality decontextualized and concealed through abstraction and quantification in the course of that academic research.

---

\*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ey words** : war mobilization, American social science, Cold war, HRRI, Korean War, psychological warfare; military-academic establishment; Human Resource Research Institute(HRRI)